

# 돼지콜레라 근절평가 및 결의대회



▲지난 11월 6일 농림부 주최, 돼지콜레라 비대본 주관으로 돼지콜레라 근절평가 및 결의대회 행사가 있었다.

농림부가 주최하고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상임본부장 : 최상백)가 주관한 돼지콜레라 근절 평가회 및 결의대회가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소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구,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최상백 비대본 상임본부장과 소만호 축산국장,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과 각 시·도·군 가축위생시험소 담당자 200명,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시군 방역단 방역전담요원 100명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농림부 축산위생과 김창섭 사무관이 정부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에 관한 설명을

- 홍보부 -

하였으며,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주 공동방역사업단과 남해시 가축위생시험소 등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8개 도별 방역업무 추진 현황 보고와 지역별 방역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또한 분임(50명×6개 분임)별로 나누어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혈청검사 ▲용인지역 등 발생지역 및 정착촌 등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 ▲병든 돼지, 떨이돼지 불법유통 방지대책 ▲도축장, 양돈단지, 정착촌의 출입차량 소독실시 방안 ▲유기적인 민·관 협조체계 확립방안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협조 분위기 조성 방안 등의 내용으로 각각의 연구과제로 분임 토의를 갖고, 돼지콜레라를 박멸하기 위한 다각적인 토의를 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돼지콜레라 박멸은 국내 양돈관련 산업계의 가장 중대한 현안과제로 돼지콜레라를 박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돈**

▲ 전국 각 시·도·군 가축위생시험소 담당자 200명,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시군 방역단 방역전담요원 100명 등이 참석하여 1박 2일동안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평가와 문제점 해결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 등이 있었다.

▲ 참석자들이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